

초등학교

드림 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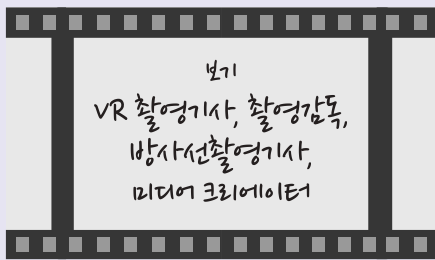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2019-17호

세상을 기록하는 사람들

최초의 카메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보조도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라 불리는 기계는 캔버스 위에 투사한 이미지를 스케치 가이드로 쓰기 위해 만들어 낸 일종의 ‘어둠상자’였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빛에 민감한 물체 위에 이미지를 붙잡아 두는 기계가 발명되었고 사진은 은판과 종이를 거쳐 필름, 그리고 오늘날 디지털 저장장치 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다양한 변천을 거쳐 이제 스마트폰마다 장착되어 매일의 일상과 세계의 변화상을 담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해 세상을 기록하는 직업에 대해 자녀와 함께 알아보세요.



1800년대 초반에 태어나 세상을 기록하는 도구로 자리 잡은 카메라는 사람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넘어 우주와 해저, 사람의 몸속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내시경이 카메라를 돕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가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장치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남은 수많은 기록들은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고 일상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카메라와 관련된 직업이나 산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자녀와 함께 찍어 봅시다 사진을 통한 진로흥미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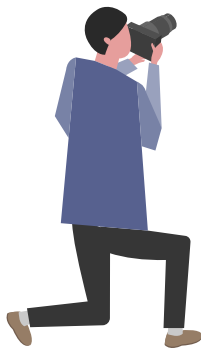
자녀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진로흥미를 탐색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진을 찍은 후 무엇을 왜 찍었는지, 찍을 때 혹은 찍은 후의 기분은 어떤지 메모하고 대화를 나눠 보세요. 폴라로이드나 디지털 카메라를 써도 좋겠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 찍고 그에 대해 적어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한 달 단위로 기록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흥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매일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자녀와 함께 살펴보세요.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관심사와 흥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자녀들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꼭꼭! 진로정보Tip

자녀가 사진에 관심을 보인다면 진로정보망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을 이용해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정보를 찾아보세요.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 꿈꿀 수 있는 진로가 다양합니다. 다채로운 직업 이야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녀의 진로흥미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커리어넷 홈페이지>직업·학과정보>직업정보>‘사진’검색)



직업정보 바로가기 ▶



나의 사진 일기

찍은 날짜		찍은 것	
사진 이야기			



- **공모주제** | 다음중택 1
① 창의적 진로개발 응원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② 진로교육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 **공모분야** | 동영상, 웹툰, 로고송 (중복 출품가능, 출품수제한 없음)
- **참가자격** | 관심이 있는 전국민 누구나
※ 초·중·고교 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단체(6인 이하) 공모
- **공모기간** | 접수: 2019년 8월 13일(화)~10월 31일(목)
발표: 2019년 12월 초(예정), 개별 연락 및 공모전 홈페이지 게시
- **참가방법** | 접수기간 내에 참가신청서 및 출품작 모두 제출
세부내용은 공모전 누리집(<http://www.discoverydream.co.kr>) 참조
- **공모규모** | 총 19편 이상, 총 상금 1,770만원
- **문의** | 공모전 운영사무국 (EBS미디어), ☎ 070-4304-5238
E-mail: discoverydream@ebsmedia.co.kr, 카카오톡 ID: '진로교육공모전' 검색